

■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中 해역 침몰

“초동 수색만 했어도...” 가족들 분노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선원 16명이 실종된 화물선 골든로즈호(3천849t급) 침몰 사고와 관련, 이 배와 충돌한 세인트빈센트 선적의 중국 화물선 진성호(4천822t급)호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해역에서 침몰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13일 선박 관리회사인 부산시 초량동 부광해운 사무실에서 현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 선박, 인명구조 활동 없이 사고 7시간만에 신고

중 외교부·해경 등 ‘능장대응’ 책임소재 공방 일 듯

오후 1시58분께 파악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오후 8시께 국내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오후 8시에 통보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지연 통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내 정보 공유 지연으로 외교부의 사태과파이 늦어짐에 따라 13일 오전에야 조종표 외교부 제1차관이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화하는 등 외교체널을 통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 측은 12일 수색작업에 우리 측 구조장황을 투입하겠다는 한국 해경의 의사타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 선원 가족 ‘능장 대처’ 분통 =진성호는 충돌사고 후 다렌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뒤 사고 발생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께 중국 엔타이(煙臺)시 해사국에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선박이 침몰할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가해선박의 능장신고에 의혹을 제기했다.

기관장 전해동씨(58·부산시 만덕3동)의 형 해도(66) 씨는 “15년간 선원생활을 해 봤지만 배를 들이받고 상대 선박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신고가 늦어지지 않았더라면 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인 선원 실종자 명단=선장 허용운(58·부산시 수정5동), 1항사 한승복(44·부산시 거제동), 2항사 최봉홍(51·경남 진해시 부흥동), 기관장 전해동(58·부산시 만덕3동), 1기사 임규용(44·인천시 가정동), 2기사 하지욱(20·울산시 아음1동), 조리장 강계중(57·경남 진해시 청안동).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미 FTA 자동차 등 합의안 변경해야”

美 하원 세출·무역소위원회, USTR 대표에 서한 발송

미 의회는 한국측과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안 가운데 자동차 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미 하원에서 한미 FTA를 1차적으로 심의할 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지난 10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FTA는 미 행정부가 다루어만 할 추가적인 주요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예시했다.

서한은 이어 미 의회가 지난 3월 1일 양당 합의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안을 행정부측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합의안은 한국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페루, 파나마와의 FTA 합의안 중 변경해야 할 부분을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투자 조항 등에 걸쳐 조목별로 명시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변경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주석(note)’을 통해 자동차 조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의 FTA합의안을 미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 뒤, 자동차와 농업·서비스 시장 접근 부문 등과 관련해 변경해야 할 사항을 페루, 파나마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위안부 결의안 지지 美 의원 122명”

훈다 의원 “6월까지 결의안 상정”

일본군 중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마이클 훈다 미 하원 의원은 12일 미 의회에 제출된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122명에 이르렀으며 내달 초까지는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다 의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한미연합회 등 50여 한인들의 초청을 받아 LA 코리아타운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122명이 위안부 사과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北 테러지원국 해제와 남북자 문제 연계 안해”

미 국무장관 “지연 조항은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일본측에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인 조지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미국 법률상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파키스탄 與野 유혈충돌 36명 사망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12일 발생한 여야 지지세력 간 유혈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으로 늘어났다고 병원 관계자들이 13일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정치 폭력 중 최악인 이번 충돌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월 해임당한 이프티카르 초우데리 전 대법원장이 주요 항구도시인 카라치를 방문하면서 비롯됐다.

초우데리 지지자들이 마중 차 공방으로 가던 중 무장한 무샤라프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총성이 오가는 유혈극으로 비화됐으며 부상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치는 일요일인 13일 오전 평온을 되찾았으나 대부분의 상점이 쉼을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 법률가들이 12일 카라치의 신드 고등법원에서 반 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고 교통량도 뚜렷하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 100명이 타이어 불을 붙인 채 거리를 점거하고 있다.

(PPP)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 당원들이, 폭력사태가 심화되자 초우데리 전 대법원장은 카라치 집회를 포기하고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갔다. /카리AP=연합뉴스

버지니아 공대 ‘눈물의 졸업식’

학교측, 희생자 가족에 사후 졸업장 수여

조승희 총기안사 사건이 벌어졌던 버지니아텍(공대)의 졸업식이 11일(현지시각) 오후 늦게 거행됐다.

와 가운데 입고 학위를 받기 위해 버지니아텍 내 ‘레인 스타디움’으로 물려들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환호와 박수로 시끌벅적했던 예전 졸업식과

는 달리 시종 엄숙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미 언론들은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정진장재를 겪은 조승희의 총기안사로 자신을 포함한 학생 27명과 교직원 5명 등 모두 32명이 사망하는 미 대학캠퍼스 사상 최악의 참사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이다.

스테거 대학총장은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난번 사건으로 슬프고도 고통스럽다”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가족 대표가 희생된 자녀들을 대신해 졸업장을 받았을 때 학생들과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일부 가족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범인 조지 가족에게는 반지나 학위가 수여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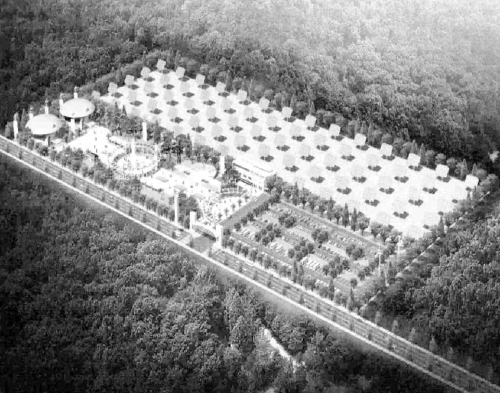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달 컨설팅

-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책임시공사 선정
-자금컨설팅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사원모집

-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자격증소지자
-금융권근무경력자
●전기기사
-전기기사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전형방법
-e-mail : hbdsolea@naver.com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협력사 : ㈜대림솔라, ㈜센앤리, 엔알솔루션(주)

한반도 솔라텍(주) www.hbdsolea.com T.(062)524-0321,8550, 8558 F.062-525-5689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덤프트럭용 자동덮개



대리점 모집 안내

당사는 덤프트럭용 자동덮개 전문메이커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양이라는 브랜드로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번 다음 지역의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개설예정지역

- 광주광역시 지역
● 전남 광양, 순천시 지역
● 제주도 지역

자격요건

- 덤프,특장차 정비 유관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용접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
● 덤프 자동덮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
● 부동산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분

특 전

-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연권 보장
● 주요 직거래처 출고차 덮개 장착대행 보장
스키니아코리아, 볼보트럭, 타타대우상용차



(주)SY테크(수양) 문의:(055)385-2364/011-879-1472 Fax.(055)386-8517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499-4 http://21sooyang.com